

오직 믿음인가? 회개와 믿음인가?(2)

- 읽을 말씀 롬 2:12-1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칭의의 수단으로 오직 믿음이 아닌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2장 1-11절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2-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 로마서 2:12-16

회개에 대한 강조는 11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로 계속 됩니다.

롬 2:12-16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12).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13).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14).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15).)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16).”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2절은 “왜냐하면” 을 뜻하는 ‘가르’ 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의 논의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2절 이후도 이방인과 유대인 중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12a절)”는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며 사는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쓴 것이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12b절)”는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며 사는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13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3:20).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13절이 실재가 아니라 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 회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면 13절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13절의 “얻으리니”가 보여주듯이(또한 16절이 보여주듯이) ‘이미의 칭의’가 아니라 ‘아직의 칭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13절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유대인과 달리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궁극적인 칭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장의 회개라는 문맥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고, 5절의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과 8절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자들 역시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 13절에서 회개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궁극적인 칭의를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갈 3:10)”**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가상이라거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미의 칭의’를 받지 못한 자가 율법을 행한다고 ‘아직의 칭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직의 칭의’는 물론 ‘이미의 칭의’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통해 회개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참 복음의 일부 즉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은 21절에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했고, 24절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19:21)”**라고 하고 그 후 **“주께서 ... 이르시**

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23:11)."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복음이 곧 로마에 전한 복음으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요구와 반응은 절대 오직 믿음이 아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 즉 율법의 행위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바울 복음의 요구입니다.

한편, 괄호 안의 14-15절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14절)는 말이 나오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먼저, 14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또는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때로는 율법의 어떤 것들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뜻한다면, 그 뒤 15절의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라는 표현 자체가 율법을 온전히 또는 철저히 지키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판과 관련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구약의 이방인과 신약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1:18-3:18).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구약의 이방인이나 신약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3:9).”는 선언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3:20).”는 선언과 정반대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12b절)”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12a절)”는 선뜻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4-15절은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고,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12a절)**”를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로, 13절은 “율법을 듣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율법이 있는’ (12절)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듣기만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17-20절). 그것은 13절이 지적한 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생각의 근거를 14-15절에서 무너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지는 이러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그러나 너희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에 비할 수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그렇다고 이방인이 죄를 범해도 안전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안전하지 않다.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러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이라는 표현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거나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때문에, 2장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회개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조금도 충돌되거나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나는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누리는 은혜들을 나누어 봅시다.